



좌로부터 설옥화, 김종일주임, 김연수과장, 유영후계장, 이계담



전남지부 사업과

가을!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하늘은 푸르고 높아지기만 한다. 누군가 가을을 이렇게 말한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사색의 계절,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어쩌면 식욕의 계절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네요! 소슬바람이 사랑스럽고, 때 모르게 피어났던 코스모스가 제철을 만나게 된 것

이 사랑스럽고, 어디선가 불쑥 가을 벌레라도 날아들 것 같은 가을 밤 또한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다.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한 아침햇살이 수천조각 은비늘 되어 창틈에 쏟아들 즈음, “건강하십니까?”의 경쾌한 인사와 함께 생각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된다.

조회를 마친 3층 사무실엔 다소 긴장감이 맴돈다. 오늘은 마쳐야 할 업무가 태산

이다. 우리 사업과는 업무의 중추적인 위치에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많은 지적과 충고를 너그럽게 받아 들여야 하고, 모든 일에 마음의 자세가 확립됐을때 건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속에 맡은바 임무에 자긍심을 느끼며 바쁘게 걷는 하루의 업무는 하나, 둘 체크되어 간다.

바지양쪽 주머니에 언제나 양손을 쑤셔 넣고 자욱한 안개와 타다만 담배를 무신 채 고개는 하향 15°로 고정하고 걸어오시는 그 모습, 너무도 인상적인 골초아닌 골초 김연수 과장님. 아마도 고질적인 버릇인가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형제분과 같은 서글서글함과 함께 자주 즐기시는 「보혜소주」에 때로는 낭만에 젖어있는 과장님. 올해 건강관리사업 목표달성을 기어이 해 낼려는 집념이 대단하시다. 특히 전국 1/3의 도서지역 주민까지 보살펴야하는 “건강관리사업”은 우리를 동분서주하게 만들고, 밤낮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연수 과장님에게서 듬직한 믿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잘 정돈된 곱슬머리 만큼이나 유난히 깔끔한 성격의 유영후 계장님. 가끔씩 탱크같은 기질을 발휘 하실때마다 우리는 “싸나이중 사나이”임을 느끼며 잠시 고개를 떨군채 묵묵. 멀리 해남 대흥사 건너편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 아파하시고, 연일 29개시군 출장에 건강이나 해치지 않으실까하는 것이 한결같은 사업과의 걱정! 인간답고 진실되게 正道를 걸어야 한다며 「서당훈장」 말씀을 곧잘 하시기도 하신다. 게다가 딸자랑에 사모님 자랑에 충실한 가정관리에 힘쓰시는 “우리 과 자

랑” 수신제가(修身齊家)스타일의 유 계장님.

가지런한 머리칼에 꺼무잡잡하고 깔끔한 흐트럼없는 태도가 선비를 연상케하는 김종일 주임님. 어울리지 않게 가끔씩 던지는 농담속에 쇠똥만 굴러가도 웃을 나이의 우리 또 다시 박장대소 하고야 만다. 딱 한 가지 요주의! 왕년 도봉술 사범까지 지내셨던지라 선불리 뒹뒹가던 가벼운 맛사지(?) 정도에 대낮부터 번개불 구경과 앞이 빨 몇개 정도 부러진 부상자가 입원하게 될지 우려도 해 봄직하다.

신속, 정확을 생활화하는, 코옆에 까만 점이 매력적인 사무실의 꽃 설 옥화양. 남 자직원과의 생활속에서 짓군은 표현에도 재치있게 웃어 넘기는 넓은 아량을 겸비한 진짜 숨은 일꾼중의 일꾼이로세. 아! 그나저나 국수는 언제쯤 먹여주려나, 문제로다.!

우리의 꽃중에서 국화 몇송이가 가을을 실감나게 하는 곳이 있다. 「기록실」. 손톱마다 봉숭아는 언제 들었는지 그 예쁜 손들이 명단작성에 통계까지 척척. 늘 웃음이 함께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못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곳.

이곳이 바로 Miss집단이기도 하다. 이런 곳을 침범한 용감무쌍한 무사가 있으니, 건협가족이 된지 며칠되지 않았지만 총각티를 벗지 못한 이계담씨. Tennis로 뒹은 몸매가 제일 자신있다가에 6총사의 미녀들은 모두 환영을 하고야 말았으니 어쩔수 없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 아닐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자」는 목표아래 6총사의 미녀들! 초롱한 눈빛속에서 못 남성들의 마

음이 싱숭생숭하게 어지럽혀지거나 앓을 지...

다시금 바쁜 하루가 되어지지만 언제든 지 허심탄회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과장넘이하 전 직원이 바라는 마음뿐이다.

초록이 지는 계절. 낙엽타는 소리가 금새 들려오고 가득 다가올 가을 바람이 그리운 계절, 풍요로운 이 계절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새롭게 살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면서 두서 없는 어설피쁜 글을 마칠까 한다.

오늘도 내일도 광주·전남지방 사업과의 건투와 활기찬 전진을 약속하면서, "건강소식"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또한 전남도민의 건강관리를 우리 협회가 책임지리라 굳게 다짐한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김연수 사업과장〉

웃음 한마당

피많은 서문장

옛날 중국에서 문장(徐文長)이라는 사람은 피 많고 장난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어느 날 친구들이 서문장을 보고 『자네 저기, 두부집 색씨가 제 손으로 자네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무엇이든 먹을 것을 사먹게 하면 우리가 한턱을 냅세』

하고 내기를 하였다.

『어려울 것 없지.』

서문장은 이렇게 대답하고 두부집으로 갔다.

그리고 색씨에서

『두부 네 모를 주시오.』

하자, 두부집 색씨는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자 이 손바닥에 두개씩 없어 주시오.』

하고 두 손을 벌리었다. 색씨는 그의

말대로 두부를 문장의 두손에 나누어 얹어주었다.

『아참, 돈 꺼낼 것을 잊었군. 미안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시오.』 서문장이 이렇게 말하자 두부집 색씨는 할 수 없이 문장의 지갑을 꺼내어 두부값을 받았다. 때마침 배장수가 그 앞을 지나갔다. 문장은 색씨에게 다시

『미안하지만 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배를 두개만 사주시오.』

하고 청을 하였다. 두부집 색씨는 마치 못해 돈을 꺼내 배 두개를 샀다. 문장은

『배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여기 좀 맡아 두시오.』

하고 두부집을 나왔다. 친구들은 꼼짝 못하고 그에게 한턱 내고 말했다.

